

국민대 성폭행 사건 대책위 신문

제 1 호

발행인 : 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1
전화 : 910 - 4914
팩스 : 910 - 4915
천리안 : KMU내 40번
천리안 ID : bacafe, circle13, kmu49th

복악의 침묵,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 학내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위원회의 입장 ■

이 사건은 명백한 강간사건이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송교수는 철저하게 계획적이었다. 그는 길을 착각한 듯 의도적으로 길을 잘못 들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 여관에 들어갔다.
- 둘째 피해자의 병원진단서와 교수가 일정부분 시인한 녹음테이프가 있다.
- 셋째 송교수는 처음에는 결백을 주장했으나 대질심문에서 성추행까지 인정을 했다.
- 넷째 간통고소는 송교수의 강간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3자 송교수의 제자 이씨가 남편인 최씨를 피해자와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이 송교수의 입에서 먼저 나온 점, 간통으로 고소했으나 고소인진술이 없었던 점, 그리고 그 사건이 검찰조사와 함께 취하된 점으로 보아 분명 송교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비난의 화살을 피해자에게 돌려 강간사건을 축소하기 위함이 명백하다.

■ 대책위의 요구 ■

- 첫째 사건의 진상을 백일하에 드러내야 한다.
- 둘째 송교수는 퇴진하고 속히 전자과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셋째 학교측은 은폐작업과 학생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사과해야 한다.
- 넷째 피해자 백학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백학우는 대학원까지 합격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학원진학을 포기해야 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국민대 성폭행사건 대책위원회

총여학생회, 총학생회, 대학원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 동아리연합회,
문대 학생회, 법대 학생회, 사범대 학생회, 공대 학생회, 조형대 학생회 외 복악의 여러학우

인원 자료		
등록인	분류기호	자료번호
98 2/27	A8-2	93

교수 강간 사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건내용 분석근거>

1 사건당일 송교수는 저녁을 먹은 후 드라이브를 잠깐하고 백학우(피해자)를 의정부와 상계동길을 통해서 왕십리에 있는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다. 그리고는 길을 잘못 들어 파주까지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 있는 한 여관으로 들어갔다. 교수는 백학우(피해자)를 여자가 아닌 학생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같이 여관에 갔다고 했다.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 강간 사건 대부분이 도발적이기 보다는 계획적이기 많다. 물론 계획적이란 것이 어느정도의 치밀성을 가지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일단은 계획하는 기간이 길었던 짧은 의도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송교수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치밀한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적인 것은 드라이브를 함으로써 밤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만든 것이다. 공간적인 것은 의정부길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평창동에서 의정부길을 이용한다는 구실이 있으므로 서울근교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가운전자 의정부길과 파주길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도 상식으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리고 송교수의 진술부분 중 "백학우(피해자)를 여자가 아닌 학생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여관에 갔다"는 부분은 그 이전에 여관에 갈 것을 미리 설정해놓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2 백학우(피해자)는 사건 바로 다음날 친구인 기계과 93학번 안학우에게 이번 일을 말한바 있다. 백학우(피해자)는 사건 3-4일후 교직원 이씨에게도 이야기를 했으며 안학우와 이씨 모두 백학우(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으며 안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했다. 교직원 이씨(간통고소인)는 들은 적은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의문점을 가져 본다면 이씨가 왜 기억을 못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백학우(피해자)의 이야기가 두달만에 잊혀질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는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3 피해자는 같은 과 조교인 최씨의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취소된 상태이다. (고소인인 이씨는 2월 20일 고소를 했다고 했지만 고소인 진술이 없었으며 보류상태였다가 소문만 만들어놓은 채 취소했다. 간통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이혼 상태여야 하지만 이씨와 최씨는 이혼 상태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이 간통 사건에는 송교수가 깊은 관련이 있다. 고소하기 전인 2월 19일날 송교수가 백학우(피해자)의 부친에게 간통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송교수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으며 단지 '당신 딸도 깨끗하지 않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여기서도 '당신 딸도'라는 말은 자신도 깨끗하지 않지만 백학우(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송교수와 부친과의 이날 대화는 녹음된 테이프가 있다.

4 2월 26일 송교수와 학생대표간의 면담 자리에서 송교수는 법정에서 끝날 때까지 학생들이 기다려주기를 당부했으며 만약 법정에서 해결된 후 돌팔매를 맞을 일이 있으면 맞을 것이고 무혐의처리가 되면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송교수가 진실에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존을 한다는 것이다. 만약 송교수가 결백하다면 혐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혐의를 벗기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상식이다.

<일반적 근거>

1 강간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

는 이런 사건이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취급되며 여러 억압과 많은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고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단순폭력을 당해서 고소를 할 경우 폭력을 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성폭력을 당해서 고소를 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피해자가 많은 억울함을 당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강간을 당해서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게 되고 재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처는 평생동안 남게 된다. 이렇게 피해자가 받아야하는 우울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양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등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어왔다.

2 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소위 '정숙하지 못한 여성'으로 몰아가면 피해자에 대한 여론은 물론이거니와 재판에서도 승소하기는 힘들고 피해자 주변에 무수한 소문이 퍼지기 마련이다. 피해자에게 잘못을 묻는 범죄의 경우는 강간밖에 없다. 이번 사건도 역시 피해자에 관한 나쁜 소문들이 퍼지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닌 거짓인 면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소문이 결정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강간이라는 사건의 핵심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몫을 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이다. 강간은 정조관련법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성경험이 없는 사람이 강간을 당한 것과 성경험이 있는 사람이 강간을 당한 것은 법적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런 법은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함과 동시에 '성경험이 있는 여자는 강간해도 된다'는 생각을 낳기가 쉽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제3자에게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이 고소인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혼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송교수가 관련이 있는 것, 보류상태로 한달남짓 남아있다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많은 의문이 생기지

만 피해자의 말에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 간통사건 때문에 강간사건의 진행이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학내 성폭행 사건을 대하면서 모두들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버려야 할 생각과 가져야 할 생각들이 있다.

먼저 이번 사건에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있으며 그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강간 사건에 집중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 주변의 소문에 솔깃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혹시 문란한 여성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의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소위 여성은 어려서부터 정숙하며 순종적이어오른다. 하지만 강간이나 성폭행 사건을 당했을 경우 왜 방어하지 못했느냐라는 비난을 하기 쉽다. 이때는 이미 왜곡된 여성성에 길들여져 방어능력이 떨어져있는 시기이다. 그리고 또한 여성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간을 포함한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행동을 어떻게 했기에...'라는 말을 듣기 마련이다. 가장 쉬운 예를 보면, 대학에서 술자리가 있을 때 의례히 여성은 음담패설에서부터 강제적인 신체접촉 등의 성추행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여성이 그러한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에서 들리는 소리 - 왜 술을 마셨느냐? 너가 술만 안마셨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텐데... -가 여성에게 더한 피해를 주었으면 주었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술을 마신 여성에게 성추행을 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정보다는 여성에게 화살을 돌린다. 그리고 피해자 주변의 소문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할 것들중의 하나다. 물론 소문은 반드시 해명해야 하지만 소문이 강간이라는 사건자체를 흐리게 만드는 것은 막아야한다.

■ 96년 12월 11일

피해자는 이날 송교수가 시킨 논문정리를 하고 있었다. 송교수가 피해자에게 "대학원도 합격했고 수고가 많다"며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하여 저녁을 먹고 드라이브 후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다. 의정부를 지나 왕십리로 가는 길이었으나 파주로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며 어느 여관 앞에서 차를 세웠다. 교수는 단둘이 할 이야기도 있고, 대학원 방에 복잡한 문제도 있으니 밤새 얘기하자고 같이 들어가기로 요구했다. 피해자는 다음에 하면 안되겠냐고 했지만 송교수는 "자신을 존경하면 같이 가자, 같이 가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묵시적인 승낙을 했고 반신반의했지만 따라 들어갔다. 한참을 과연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송교수는 "애인이 있나, 4학년씩이나 됐으니 경험은 있겠지?"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했다.

▷송교수 : 이날 송교수는 피해자를 여자가 아닌 학생으로 생각을 했고 평소에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여관에 갔다. 그리고 남학생이라도 마찬가지로의 행동을 했을 것이며 결백하다고 말했다.

■ 12월 12일

피해자는 친구 안학우를 만나서 11일날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했으며 안학우는 고소하라고 했지만 "대학원에 입학한 상태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에 그럴 수 없다"고 했다.

■ 사건 3-4일후

피해자는 같은 과 교직원인 이씨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으며 이씨는 "별로 좋을 것 없으니 숨기고 있어라, 나는 듣지 못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 2월 17일

교수 강간 사건의 경과

피해자의 부모는 총장을 만났다. 총장은 이들의 여유를 달라고 했으며 송교수를 불러 달라는 부모의 제의는 거절했다. 부모가 스스로 공대 강의실로 가서 송교수를 만났다. 교수는 보자마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얘기를 했다. 교수는 용서를 빌며 자신의 실수였다고 시인했다. 이곳에서 피해자와 송교수가 대면을 했다.

■ 2월 18일

송교수방에 있는 조교 최씨와 피해자의 부모가 만났다. 최씨는 유학을 가는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와 만약 유학을 간다면 송교수가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을 했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그런 식의 도피 유학은 보내고 싶지 않다. 교수를 처벌하고 싶다"고 말했다.

■ 2월 19일

▷총장면담 : 이날 피해자의 부모는 두 번째로 총장을 만났다. 정식적인 코스로 유학보내줄 것을 당부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저 달라고 말했다. 총장은 그럴 수 없다며 "합의나, 고소나"라는 식의 말을 했고 부모님은 "합의를 하면 내달 돈 받고 몸판 것 밖에 안된다. 그리고 이미 고소를 했다"고 하자 총장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나가라"고 했다. 신입생 수련회 장소인 청평에 있던 송교수는 그쪽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 밤11시경 그쪽에 도착한 부친과 삼촌이 교수 방으로 가기 전에 학생들과 약간의 밀고 당기는 일이 있다가 부친과 송교수는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했다. 그 전에 송교수는 녹음기가 있을 수도 있다며 피해자 부친의 옷을 벗기고 신발을 벗겼다. 이미 고소 사실을 알고 있는 송교수는 강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 송교수는 "학교

에서 나를 밀어 주고, 백도 있고, 돈도 있다. 당신 딸 내일 모래면 간통죄로 감방간다."는 말을 했다.

■ 2월 20일

▷이씨 : 피해자와 남편 최교수를 간통죄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했으며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 : 최교수는 같은 대학원 방에 있는 선배로써 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한 감정은 없었고 간통한 사실은 더욱 없었으며, 부인인 이씨와도 평소에 친하게 가족처럼 지냈다.

■ 2월 26일

송교수와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 총여, 대학원총학, 총학, 공대, 전자과, 학보사, 학생과에서 대표들이 모였으며 교수는 "결백하다. 그리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진행중이고 교수로써 어떤 말도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조기에 끝나는 길어지든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 주기를 학생들에게 당부했으며 그 이후에 돌팔매를 맞을 일이 있으면 맞을 것이고 무혐의로 되면 학교를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는 수업을 못할 것 같으나 매일 학교를 나으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 2월 27일

송교수와 피해자가 경찰대질심문에서 송교수는 "강간을 하려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냥 잤다"고 진술했다.

■ 3월 11일

학생처장이 준비한 '성폭행 대자보관련 당사자 모

임'이 도서관 5층 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이 장소에는 대자보를 부착한 단위의 학생대표와 학생과직원,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이 모였으며 당사자들은 송교수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와 남편인 최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이씨가 참석했다. 먼저 피해자가 진술을 했다. 그 다음 이씨의 진술과 이씨가 가져온 남편인 최씨의 진술서를 읽는 순서가 있었다. 이씨는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으며 "가정적인 문제로 남편을 고소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송교수에게 "2월 19일 청평에서 피해자의 부친에게 간통부분에 대해 언급한적이 있나"는 질문에 "자신은 그런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간통죄로 고소당한 사실은 몰랐다"고 했다. 학생처장은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합부로 교수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으며 학교의 명예를 위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에게 기다려 주기를 당부했다.

■ 3월 26일

간통으로 고소한 사건이 고소인진술조차 하지 않고 한달 넘게 보류되어서 이 날 취소되어 양천경찰서로 넘어갔다.

* 현재 피해자는 간통사건의 법적처리가 마무리 되면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준비중이다.

"대책위와 함께 합시다"

이제부터 있을 대책위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대책위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학우는 학생회관 3층 대책위 사무실 (총여학생회)로 오십시오.
학우여러분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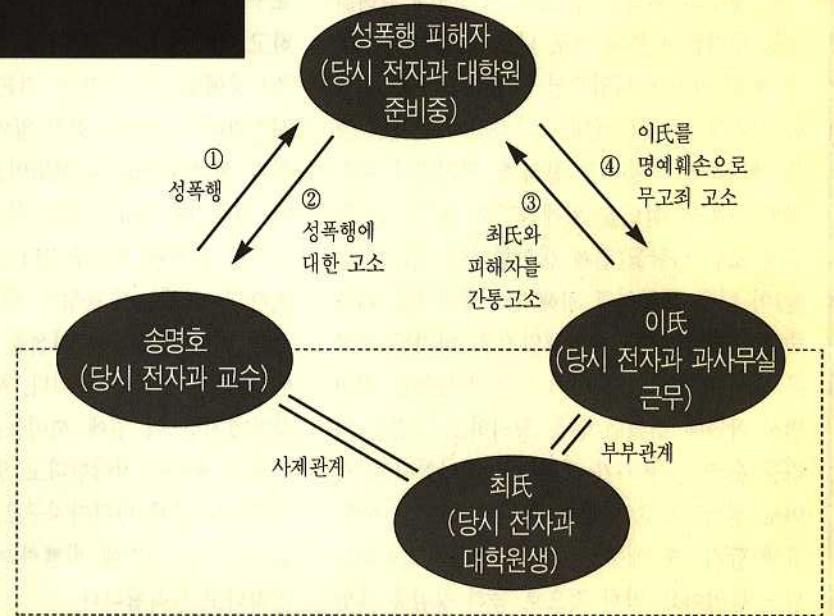
국민대 성폭행 사건 대책위 신문

제 2호

발행인 : 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1
전화 : 910 - 4914
팩스 : 910 - 4915
천리안 : KMU내 40번
천리안 ID : bacafe, circl3, kmu49th

■ 교수강간사건의 경과 ■

- 12월 11일 : 송명호 교수에 의한 강간사건 발생
- ↓
- 사건 3~4일 후 :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교직원 이씨(전자공학과 과사무실 근무)에게 강간에 대한 사실을 알림
→ 이씨는 "이 사건을 숨기는 것이 좋겠다"고 함
- ↓
- 2월 17일 : 피해자의 부모님과 송교수와의 면담
→ 송교수는 자신의 잘못을 빌며 "자신의 실수였다"고 시인함
- ↓
- 2월 19일 : 총장과의 면담 → 총장은 합의를 종용
송교수와의 면담 → "학교에서 나를 밀어주고, 뺏고 있고, 돈도 있다.
(청평 O.T장소에서) 당신 딸 내일모레면 간통죄로 감방간다"라고 함
- ↓
- 2월 20일 :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교직원 이씨가 피해자를 고소
- ↓
- 2월 21일 : 총학생회에서 '강간사건'을 대자보로 알림
→ 학교당국 학생과에서 총학생회로 이씨에 의한 간통고소건을 통보함
- ↓
- 2월 26일 : 송명호 교수 간담회 요청(송명호, 학생과직원, 학생대표간의 만남)
→ 송명호 교수는 "결백하다. 그리고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 ↓
- 2월 27일 : 경찰 대질신문 조사진행
→ 송교수는 "강간을 하려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냥 잤다"고 진술
- ↓
- 4월 1일 : 이씨가 피해자에 대한 간통고소를 취소함
→ 이씨는 간통고소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차 하지 않음
- ↓
- 4월 22일 : 피해자는 이씨를 '무고죄'로 고소함
→ 간통사실을 조작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상을 입혔기 때문



의혹 하나!

송교수는 이씨의 간통고소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송교수는 이(교직원)씨가 피해자를 간통으로 고소한 날(2월 20일)보다 하루 전(2월 19일)에 이미 고소사실을 들먹이며 피해자의 부모님을 협박했다. 19일, 송교수는 전자공학과 O.T장소에 있었다. 그런데 20일에 일어난 일을 부모님들 앞에서 언급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 필시 이씨와 송교수간에 은밀한 사전모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혹 둘!

학교측의 개입가능성

학교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은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2월 21일 학교당국 학생과에서 총학생회로 이씨에 의한 간통고소사실을 알렸다. "왜 이씨는 자신의 사생활인 고소사건을 학교측에 알렸을까? 그리고 학교당국은 왜 이씨의 간통고소사실을 총학생회로 알렸을까?" 게다가 학교당국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부모님께 합의를 종용했다. 또한 학교측은 왜 대책위 대자보를 철거하는가? 교직원에게 의한 대자보 철거는 많은 학우들에 의해 목격되었다.

의혹 셋!

이씨는 '왜' 간통고소를 스스로 취소했는가?

2월 20일 피해자를 간통죄로 고소했던 이씨는 스스로 4월 1일 간통고소를 취소하였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사건을 전해 들은 뒤 "숨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간통죄로 고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이씨의 간통고소는 피해자에게 나쁜 소문이 퍼지게 하기 위한 조작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세가지 의혹들은 '교수 성폭행사건'을 우리들에게서 잊혀져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작 피해자는 재판에서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을 강간하는 교수'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복악의 명예, 우리들의 명예는 이 사건을 은폐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간교수에 대한 퇴진과 사건의 진상규명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일만 복악의 작은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책위와 함께 해주십시오.

국민대 성폭행사건 대책위원회

총학생회, 총학학생회, 대학원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 동아리연합회, 공대 학생회, 사회대 학생회, 문대 학생회, 법대 학생회, 사범대 학생회, 자과대 학생회, 조형대 학생회 외 복악의 여러학우

INTERVIEW

1. 사건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의 심경은 어떠신지요?

☞ 참으로 혼란한 시기를 보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간통고소사건과 루머에 시달렸고, 친구들은 모종의 협박을 받았고, 거기다 알려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겁도 나고 때로는 속상하고, 이번 일만 아니었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시기에 밖에도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죠. 거기다가 내가 대학 생활의 절반을 할애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현재 대학원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포함하고 가해자로 몰아세울 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속상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진정되었고 여러 다른 사람들을 접하면서 작년에 겪었던 일을 정리하고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해야할까요. 적어도 현실적으로 냉철히 불려고 하고 있어요. 요새 합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약능제강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약한 것으로 능히 강함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재판이랑 여러가지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진실을 바라보는 눈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보수적인 사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한동안 '간통고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취하되었는데, 그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불쾌해요. 거기다 송교수가 이 일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니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섬찟하고 두렵더군요. 검사 조사중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나에게 시인하라고 말하는 검사 앞에서 또 한번의 좌절과 절망을 겪어야 했었어요. 게다가 연구실에 있을 때 송교수 연구실 사람들과 더불어 이씨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씨가 왜 그랬는지 용납이 되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송교수만의 문제였지만 이 일에 끼어들은 이씨나 최씨도 일말의 책임을 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실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구요. 사건을 흐려놓고 불리하다는 생각에 발뺌하려는 것, 참으로 비열하다고 생각합니다.

3. 얼마전 평소에 친한 사이로 지냈던 이씨(학교교직원)가 간통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씨 본인이 간통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종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송명호 교수가 개입하였다는 증거도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 앞서서도 말했지만 참으로 아비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생각돼요. 제가 최씨와 친했던 것처럼 왕씨(전자과 대학원생)도 이씨와 친했는데 그럼 그것도 간통인가요? 상황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텐데 답답하더군요.

☞ 처음에는 제가 송교수를 고소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약이 오르고 한편으로는 후회도 되었어요. 거기다 전 이씨에게 송교수가 저지른 일을 숨김 없이 말할 정도로 믿었는데 말이죠. 권력이란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4. 본인께서는 전자공학과 송명호 교수를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현재 법정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현재 검찰 수사중으로 조만간 송교수와 대질신문을 받을 것인데, 송교수가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 대책위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 참 많은 사람에게 저의 짐을 지게 해서 미

안하면서도 고마워요. 저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더 이상 불미한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나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책을 임시적이 아니라 상시·영구적으로 마련하는 싸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6. 마지막으로 복약의 모든 학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성폭력이 잔인한 것은 대인관계에 많은 침해를 받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만날 때 겁부터 나서 지독할 정도로 마음 아프거든요. 그렇지만 대책위 사람들과 만나면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복약이 깨어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전 복약이 의식이 있고 깨어 있다면 아마도 이런 일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참으로 편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공부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배움터가 되도록 스스로 만들어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학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어느 곳도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상과 꿈이 있고 울지 않은 일에 대해서, 권력과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패기있는 젊은이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념에 따라 행동하시구요. 세상의 모든 빛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인터뷰는 4월 24일(목) 늦은 9시에 총여학생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학내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위원회의 입장 ■

이 사건은 명백한 강간사건이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송교수는 철저하게 계획적이었다. 길을 착각한 듯 의도적으로 길을 잘못 들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 여관에 들어갔다.

둘째 피해자의 병원진단서와 교수가 일정부분 시인한 녹음테이프가 있다.

셋째 송교수는 처음에는 결백을 주장했으나 경찰대질신문에서 성추행까지 인정을 했다.

넷째 간통고소는 송교수의 강간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3자 송교수의 제자 이씨가 남편인 최씨를 피해자와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이 송교수의 입에서 먼저 나온 점, 간통으로 고소했으나 고소인진술이 없었던 점, 그리고 그 사건이 검찰조사와 함께 취하된 점으로 보아 분명 송교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비난의 화살을 피해자에게 돌려 강간사건을 축소하기 위함이 명백하다.

■ 대책위의 요구 ■

첫째 사건의 진상을 백일하에 드러내야 한다.

둘째 송교수는 퇴진하고 속히 전자과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교측은 은폐작업과 학생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사과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 백학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백학우는 대학원까지 합격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학원진학을 포기해야 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4월 29일부터

백학우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송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대책위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은행 : 036-21-0653-471
예금주 : 남점리